

# 민생정치…낮은정치…“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

안철수 귀국 일성 ‘새정치’ 구상 뭘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통합·소통 중시

노원병 출마, 지역주의 탈피 씨앗될 것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11일 귀국 일정은 예상대로 ‘새정치’였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오후 귀국하자마자 가진 인천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와 관련, “지난 후보 선거에서 새정치를 위해선 어떤 가치를 밟았다고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더 낮은 자세로 현실과 부닥치며 일궈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길을 위해 한 발씩 차근차근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어떤 가치를 갖길도하겠다.”

안 전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가 구상한 ‘새정치’의 단상을 보여줬다.

안 전 교수는 우선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한숨을 털어드리는 것이 곧 제가 빛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에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눈물을 닦고 한숨을 털어주는 것’은 민생정치를,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는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각각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안 전 교수는 특히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새정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즉,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당이 다르더라도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합의하고 같이 뜻을 모으는 통합의 정치, 그냥 단순히 이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민생을 다루는 문제 해결의 정치”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에

서 풀어 쓴 새정치의 의미를 해석해 준 것이다.

그는 또 새정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국회의원 정수축소 문제’를 물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러 가지 정치 예산안들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잘 다듬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 전 교수는 새정치의 모습으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야당과 후보 단일화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진 분들끼리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정치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으며 “부산 영도를 선택하지 않고 노원병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역주의를 벗어나 수도권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했다”고 답했

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여느 한쪽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먼저 모범적으로 풀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전 교수는 그러나 이날 새정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일정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해지면 밝히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만약 (재보선에서) 선택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 뜻을 같이하는 분들 함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는 당면한 선거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피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귀환’ 여야 반응

민주당 ‘좌불안석’

새누리 ‘거리두기’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귀환’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전 교수의 귀국 후 행보가 미칠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안 전 교수의 초기 등판과 관련, 자신론과 견제심리가 뛰어워 어수선한 분위기다.

민주당이 전날 서둘러 정당개혁안을 내놓은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정치혁신위원회 차원의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안 전 교수의 귀국에 맞서 정치 개혁 이슈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밤(發)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당내 동요와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교수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 노원 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평정심을

투대로 혁신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전 교수와의 연대와 연합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민주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조용한 가운데 안 전 교수의 귀환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흔한 논평도, 성명도 나오지 않았고 당내에서 여당 수준의 발언만 나왔다. 햐드민감하게 반응, 4월 재보선의 경쟁자인 안 전 교수의 ‘몸값’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안 전 교수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각을 세우다가는 후폭풍이 예상되는데다 애권의 분열도 예상되는 만큼 관망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긴장감을 높추지는 않고 있다. 안 전 교수는 새 정치를 기치로 ‘틈새시장’을 과고를 경우 여야 정치권은 물론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등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11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난지 82일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서 향후 정치활동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 김부겸, 전대 불출마

문재인 캠프 인사 첫 “대선 패배 책임” 공식 사과

이용섭·강기정 단일화팬 주류·친노 지원 가능성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이 유력시됐던 김부겸 전 의원이 11일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크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전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 가운데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 입장문을 공식 표명한 것은 공동선대본부장 출신인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이날 새정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일정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해지면 밝히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만약 (재보선에서) 선택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 뜻을 같이하는 분들 함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는 당면한 선거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피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류 측이 어떠한 인물을 주자로 내세울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재선의 이용섭 의원과 영광 전 의원이 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범주류 그룹에서는 4선의 신계륜, 주미애 의원과 3선의 강기정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광주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기정, 이용섭 의원의 단일화가 조기에 이뤄진다면 주류 및 친노 그룹에서 물갈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랑갑과 당내 화합과 혼연一体에서 주미애 의원이 주류 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주류 그룹 주자들이 ‘반(反) 김한길 연대’를 구축, 단일화 분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주류 주자인 김한길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비주류 그룹의 특성인 결집력이 약하다는 점이 변수”라며 “범주류에서 중립적이고 혁신적 인사를 당권 주자로 내세운다면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친노 및 주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4·24 재보선 준비 착수

후보 추천심의위원장에 서병수 사무총장

14~16일 후보자 접수…이달말 공천 완료

새누리당은 11일 당사에서 4·24 재보선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서병수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재보선 준비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서 위원장 외에 신성범·김을동·김태흠·김도읍 의원과 김정 전 의원, 최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연주·한국 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김서현 변호사 등 8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공심위는 그려나 18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당권제 폐지’를 제시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당권제 폐지’를 제시했었다.

4·24재보선에서는 서울 노원, 부산 영도, 충남 청양·부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며 이날은 3개 선거구를 차례로 방문해 후보 신청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하기로 했다.

공심위는 그려나 18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당권제 폐지’를 제시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당권제 폐지’를 제시했었다.

4·24재보선에서는 서울 노원, 부산 영도, 충남 청양·부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며 이날은 3개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3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부조직법’ 평행선 대치…극적 타결 ‘안갯속’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지만 핵심 합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장기적 표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부담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를 반영하듯, 여야 지도부는 11일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는 조건이 불이 있지만 정부조직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

서 “지금은 국정의 비상 상황이 만큼 국가 안위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안내에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정부조직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 더 기다리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공멸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급매매

#### 양산동

6차선 도로변

#### 3층 건물(영업중)

#### 1층, 2층 식당

#### 3층(가정집)

#### 대형 주차장 원비

#### 토지366평

#### 건물207평

#### 현 토지가격

#### 450만원 정도

#### 15억

#### 대형식당

####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 (월세도 가능)

010-3701-4767

###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

- 위치: 양산동 대지 330m² 건물 793m² 월수익 380만원 (주거용대수+예상 매매가 7억8천만 원 1억6천만 원+1억6천만 원)

#### ◆상가매매◆

- 위치: 용산동 원룸 212구 110m² 월수익 400만 원 매매가 880만 원 (보증금+천안 용재역 원 이동통신점 임대예정)

- 위치: 용산동 원룸 212구 66m² 호반주차입구 앞 이동통신점 주유지 대로변 코너건물 학성상권 매매예약

#### 분양

- 용산동 청단자리2차 1100m² 대비매도 상권 주차입구 앞 1층 48m² (단지독점형 상권) 대비매도 440만 원 매매가 1억6천만 원

- 용산동 청단자리2차 1100m² 대비매도 상권 주차입구 앞 2층 47m² (단지독점형 상권) 대비매도 130만 원 (7천백만 원) → 2구 쪼개분양 가능

#### 상가임대

- 위치: 용산동 청단자리2차 1100m² 대비매도 상권 주차입구 앞 132m² 3층 보증금 3000만 원/월(400만 원) 피아노학원/기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 위치: 용산동 청단자리2차 1100m² 대비매도 상권 주차입구 앞 132m² 4층 보증금 3000만 원/월(1200만 원) 태권도 학원/미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 상가주택매매

- 위치: 산정동 하남자구 1층점포3칸 2층 투 쓰리룸(가 3층복층인점 월수익550만 원+3천만 원)

- 위치: 월전동 틈10평 1층점포, 월수익1650만 원+계약일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 분양대행, 시장 상담)

### 경매비법

- ▶ 배우면서 투자기능
- ▶ 실제 낙찰사례 스타디
- ▶ 1인1물건 주천
- ▶ 주1회, 3개월 완성
- ▶ 수강료 550만원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